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종교개혁 49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집회 시간에는 영화 <로메로>를 상영합니다. 교육관에서 1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11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하며 감사의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등부와 중고등부는 별도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에는 찬양제가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세미나가 '물건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11월 12일(토) 오전 10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각 선교회별로 참석예정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람, 나무, 산 등 그 누구에게라도 진심어린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예배 전에는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 소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들의 묵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예배 후 준비된 식사를 맛있게 드시되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식 당 봉 사 : 정영선 백성례 한숙경 안경아 김수진 김기성 임창선
 11/6 식당 봉사 : 이영란 박미영 윤정화 배삼순 이현순 이국노 이봉배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노우종 이정림 한상익
 다음 주 설거지 : 김남홍 이지훈 이근식 권미숙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2(통11). 거룩한 주님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매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건만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둔감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세상의 추문거리로 전락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온전히 새롭게 해 주십시오. 크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교회가 바름과 겸손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43:1 인도자
 ♠ 교 독 문 104. 종교개혁주일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조병무 장로
 응답송 찬양대
 찬 양 585(통384).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함께
 ♠ 성경봉독 I. 마7:13-14 황경순 집사
 II. 고전2:1-5 장재영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찬양대
 말 씀 I.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성운 전도사
 II.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광상준 최경미 이국노 김민화 박규석 박경선 박병구 김정애 박창운
 허정윤 윤미경 이한림 김명희 최종원 임영 정경례 한인철 조윤숙
 홍성식 이유리 조병익 조정연 장원호 박성희 이광용 형인순 정선희

월정헌금:

김경수 김문주 김승현 김수진 김용태 박정숙 김지윤 박옥순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유상진 유은정 윤성종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은자
 이증자 김창경 전영자 황경순 황원순 황지순 김성은 조은나 차혜심
 이준림 허준호 문홍일 이경남 무명2

감사헌금:

윤석철 장혜숙 홍성식 이유리 이용규 노지현 박홍재 윤주필 박병구
 김정애 윤수연 박규석 이인웅 오송경 조연우 메르디앙부페 무명

녹색꿈헌금:

한상의 정영선 오자영 이에서 조연우 일본교회방문객 무명4

	장혜숙	백혜숙	교회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침	김윤수
	임정자	최경미	이은옥	임정자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김진경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이봉배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김경수
	박호선	허정윤	김정숙	김정애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안홍숙
	정영선	이현숙	김희우	김수진
	이영란	박미영	방극숙	배삼순
	박혜경	조항미	이기분	심상숙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근식	교회	교회

마음으로 읽는 글

풀꽃과 더불어

구상

아파트 베란다/ 난초가 죽고 난 화분에
잡초가 제풀에 돌아서/ 흰 거물 같은 꽃을 피웠다

저 미미한 풀 한 포기
영원 속의 이 시간을 차지하여/ 무한 속의 이 공간을 차지하여
한 떨기 꽃을 피웠다는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기 그지없다

하기사 나란 존재가 역시
영원 속의 이 시간을 차지하며/ 무한 속의 이 공간을 차지하며
저 풀꽃과 마주한다는 사실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묘하기 그지없다

곰곰 그 일들을 생각하다 나는
그만 나란 존재에서 벗어나/ 그 풀꽃과 더불어

영원과 무한의 한 표현으로
영원과 무한의 한 부분으로
영원과 무한의 한 사랑으로/
이제 여기 존재한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저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십자가에 대해 말만 할 뿐,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날마다 저의 작은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로메로> 상영	11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정희수 감독	한완식 장로	송동준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정한구 박효선 홍복선 권미숙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면티셔츠의 저렴한 가격에 숨겨진 진짜 비용

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가? 편안하고, 통기성 좋고, 물빨래 가능하고, 땀도 잘 흡수하고, 용도도 다양하다. ... 그리고 거의 어디서든 살 수 있다. 심지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도 있다. 돈은 6.99달러(약7,700원)나 4.99달러(약5,500원), 간혹 멀티팩 상품이거나 할인행사 중이면 1.99달러(약 2,200원)만 지불해도 된다. ...

면화작물은 물을 좋아한다. 면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관개되는 식물에 속한다. 그리고 관개 과정에서는 누수와 증발로 물이 많이 낭비된다. ... 면화 수입국은 자신의 국경 밖에서 엄청난 물을 소비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매년 1인당 소비되는 면화에는 물 135세제곱미터가 들어 가는데, 이중 절반가량이 미국 밖에 있는 물이다. ...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건상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매우 불공정하다. 이는 우리가 티셔츠로 이미 가득 찬 서랍장에 티셔츠 한 장을 더 사서 넣기 전에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구소련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물 고갈의 비극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국영 면화농장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해인 아랄해로 들어가는 강물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1960~2000년에 수량이 80퍼센트나 줄었고, 한때는 비옥하고 푸른 땅이었던 곳이 거의 사막이 되었다. 그리고 아랄해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그 지역의 기후도 달라졌다. 여름은 더 짧고 덥고, 겨울은 더 추워졌으며, 강수량이 줄고, 엄청난 먼지폭풍이 발생했다. 이 먼지에는 소금기와 DDT 같은 농약성분이 들어 있어서 공중보건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면화농장에서는 보통 면화를 심기 전에 화학약품을 살포해 땅을 소독한다. 면화씨도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제균제에 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면화가 자라는 동안 또 여러 차례 농약을 뿌린다. ... 면화 노동자들은 흔히 신경질환과 시각장애에 시달린다. 캘리포니아주의 농약 관련 질환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면화는 농약이 유발한 노동자 질병 사례 건수에서 3위였다.

그리고 수확기에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

확할 때가 되면, 잎 때문에 흰 면화솜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막고 수확기 계가 면화를 더 잘 딸 수 있도록 잎을 모조리 떼어버리기 위해 독성 화학물질인 고엽제를 살포한다. ...

내 티셔츠는 흰색이기 때문에 특히 강한 표백제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색이 있는 티셔츠도 염색하기 전에 먼저 표백을 한다. 보통 염색 과정에는 벤젠,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염료 고착제 등의 화학약품이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면은 원래 염색이 잘 안 먹기 때문에 염료의 3분의 1은 폐수로 들어간다. 그나마 표백에 과산화수소만 사용했으면 좋으련만,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이 여전히 염소를 사용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류는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다. 염소는 그 자체로도 유독하지만 탄소를 함유한 유기물질과 섞이면 발암물질과 독이 된다. ...

드디어 내 티셔츠가 태어날 준비가 됐다. 마무리 공정을 거친 면직물이 내 티셔츠가 탄생할 공장으로 운송됐다. 티셔츠를 만드는 단계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단계다. 노동 착취 공장을 고발하는 내용은 각종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다.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도 대부분의 의류 노동자들은 여전히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 브랜드 의류회사들 중 상당수는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두려 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특구나 수출가공구, 혹은 방글라데시 같은 곳의 노동자들이, 조명과 환기 시설이 미비하고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나는 공장에 땀이 모여서, 정신이 멍해지는 반복적인 허드렛일을 심하게는 하루에 11시간씩 하면서, 적게는 시간당 10~13센트 밖에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문제는 이산화탄소 발자국, 즉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내 티셔츠 한 장에 필요한 면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0.9킬로그램이 생성된다. 그리고 세척, 방직, 방적, 마무리 공정에서 추가로 1.4킬로그램이 생성된다. 내 작은 티셔츠 한 장이 2.3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이다. ...

가장 좋은 선택은 지금 가지고 있는 티셔츠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입고 잘 보살피고 보석처럼 아끼는 것이다. 최신 유행 색상이나 디자인이 나왔다고 해서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 사지 않는 것이다. ...